

애국심과 태극기 게양

서울대 의대에서 정년퇴임할 때까지 나는 의학자로서 많은 국제학술대회에 참석하여 민간외교 차원에서 국위선양에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한다. 87년 한국을 방문한 남미 콜롬비아 대통령의 급성복막염 수술을 해준 덕인지 콜롬비아에서 열린 학술대회때는 다른나라 국기보다 2배나 큰 태극기가 게양되어 나를 놀라게 했다. 또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학술대회때 주최측은 한국대사관서 태극기를 공수해다 게양해 주기도 했다. 하버드대에 계속 근무해달라는 권유도 뿌리치고 귀국해 내 학교 내 조국에서 후진을 양성하고 정년퇴임한 것도 자랑스럽다.

의 학자로서 의학과 의료의 교육, 연구 및 진료에 온갖 힘을 다하여 쉬지 않고 외길을 열심히 걸어오다 보니 벌써 정년이 되어 서울의대를 정년퇴임하게 되었다. 한참 차원 높은 국제활동을 계속할 수 있는 큰 발판을 떠나게 되어 아쉬움과 섭섭함이 교차한다. 그간의 나의 행로를 살펴보면 학술활동을 국내외적으로 정말 열심히 하였다고 생각된다.

정년이 되었다고 업적과 소감을 묻는 분들께 답변할 자료를 만드느라 일요일 하루 옛날 일들을 회상하여 보았다. 외국에 나가면 애국자가 된다는 말이 있듯이 나도 민간외교 차원의 애국심을 발휘한 일들을 적어보기로 하였다.

2배 큰 태극기를 걸고 특강

1987년 9월 8일 제8차 아시아태평양 암학회 학술대회 준비에 한창 바쁜 중에 한국을 국빈 공식방문하던 남미 콜롬비아 바르코대통령이 대장

천공에 의한 급성복막염을 일으켰다. 서울에 도착하기 전, LA공항을 떠난 직후에 급작스런 심한 복통을 일으켜 대장이 천공된지 13시간 지나서야 수술을 하였으니 범발성 급성복막염 정도가 매우 위중하였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다. 무장한 경호원들의 감시 하에 복막염 수술을 성공적으로 끝냈고 칠순이 넘는 노(老)대통령은 빠른 속도로 회복되어 귀국하였다. 이 일로 콜롬비아공화국 최고훈장인 대십자훈장을 받았고 또 그 나라 외과학회 연차 학술대회의 특강연사로 초청되었다. 학회가 열린 Bogota 시내 최고급 호텔인 타겐티마호텔의 현관에는 나와 같이 초청된 교수들의 국가인 영국 및 캐나다 등의 국기가 태극기와 같이 나란히 걸려 있었다. 태극기는 제일 앞에 그것도 미국, 캐나다 국기의 2배나 되는 제일 큰 크기로 걸려 있었다. 한편 같은 시기에 우리나라 대통령 특사로 콜롬비아를 방문중이던 김재순국회회장을 호텔 로비에서 만나 “김교수 덕분에 나도 더 용수한 대접을 받았어, 바르코대통령이 아주 친한파로 되어 남미국가들을 끌어들이려고 있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애국했다’는 뿌듯한 삶의 보람을 느꼈다.

태극기 게양된 후 강의

1986년 11월28일부터 12월7일 까지 스페인 바르셀로나 의과대학 외과주최의 단기대학원과정에 미국, 영국, 중국 교수들과 함께 위암분야의 특강강사로 초청되었다. 바르셀로나는 성 가족성당으로 또 피카소의 고향으로 유명한 도시이고 바르셀로나



金 鎮 福

(인제대 서울백병원 의료원장)

대학의 고화는 박물관보다도 볼 것이 많다는 소문도 있고해서 꼭 참석하였다. 강단에는 스페인 국기와 바르셀로나기 및 참가국 국기가 게양되었는데 당연히 있어야 할 태극기를 찾아보니 없었다. 대회장인 프치 라카레 교수한테 농담조로 “태극기가 보이지 않으니 강의를 안해도 되겠네요”라고 했더니 대단히 미안하다고 하면서 그 경위를 알아보고 하는 말이 바르셀로나 주재 한국영사관(후에 알았지만 그 당시에는 명예영사관이었음)에 태극기 대여를 부탁했는데 보내오지 않았다는 사연이었다. 한시간이면 공수해 올 수 있는 마드리드대사관에 연락하여 정오에는 태극기를 게양하여 주었고 그 앞에서 기념촬영을 한 후 나는 태극기 밑에서 신이 나서 강의를 마쳤다.

美 외과학술원 명예회원

태극기 게양 얘기를 하나 더 하자. 1992년 10월11일부터 10월15일까지 미국 뉴올리언즈시에서 개최된 미국 외과학술원 연차 학술대회에는 한국인 외과계 의사가 1백명 가까이 참석을 하였다. 그러나 개최식을 개최하는 단상의 만국기 가운데 태극기가 보이지 않았고 우리 참석자 모두는 매우 섭섭하였다. 사실인 즉 단상에 초청된 명예회원이나 각국 대표인 Governor가 참석했을 때만 그들의 국기를 게양하기 때문에 없었다고 한다. 그래서 내가 명예회원이 된 1993년부터 개최식에는 반드시 참석하여 태극기를 게양하는 작은 애국심을 바쳐왔다.

군의관으로 병역의무를 완수하는

동안에도 학문에 게을리 하지 않고 2년간 트리플리와 윌터리드 두 미 육군병원에서 50명 입원환자의 한 병실 ward 34를 혼자 맡아서 presentation하는 등 열심히 일하여 미국 군진의학회의 명예회원이 되었다. 케네디대통령 주치의 트레벨박사의 백악관 초대를 받아 대통령과 인사하는 기회도 있었고, 수도육군병원에서 밤새우며 수술을 많이 하여 육군참모총장 표창 등 많은 칭찬도 받았다. 유익한 군대생활을 마치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외과 전임강사로 돌아와서 바로 외국장을 맡아 해야 했고, 교실 분위기를 연구하는 방향으로 바꾸느라 독재한다는 얘기와 험구도 받았으나 한국을 주도하는 외과학교실로 이끄는 데 크게 공헌하였다고 자부한다.

1969년 7월부터 1971년 9월까지 2년 2개월간 미국 보스톤시의 하버드 의대와 보스톤 의대에서 암외과와 이식외과의 임상 및 연구 펠로우(Fellow)로 있을 때는 미국 외과의가 3~4시간 걸려 수술해도 성공률이 낮았던 췌신장이식술을 30~40분에 거뜬히 성공시켜 수술기술의 우수성을 보이는 행운이 있었다. 미국에서도 당시 연구비가 감소되고 재정적으로 어려운 형편이어서 연구비 절약 목적(?)인지 브리감병원 하버드 의대 외과에 계속 근무할 것을 권유받았지만 나는 내 학교 내 조국을 위하여 일하겠다는 요지부동의 일관된 신념(애국심?)으로 귀국을 결심하였다.

솔직히 말해서 나의 아내와 재미 개업 중이던 처남 Dr. Lee는 자네 아니면 서울대학이 안되느냐 하면서 남들은 애써서 미국으로 오고 있는데

왜 돌아가야 하느냐고 귀국을 만류하였었다.

한국 최초 美 외과학회 명예회원

귀국해서 쉴 틈없이 나의 청춘을 몽땅 바쳐서 교육, 연구 및 진료에 봉사하여 나름대로 위암수술 연구 등을 비롯해 국내외적으로 공헌을 하려고 생각한다. 그 중에서 전세계의 외과계 학자중 45명 뿐이고 3천명 이상의 미국 외과교수 중 투표로 3백명을 선출한 정회원을 가진 외과학의 상원같은 미국 외과학회 (American Surgical Association)의 명예회원에 한국 최초로 1990년 4월에 뽑히는 영광을 얻었다. 이어서 1993년 10월에는 미국 외과학술원 (American College of Surgeon, ACS)의 명예회원으로 당선되었다. 이 ACS의 명예회원은 전세계의 외과계 외에 산부인과, 이비인후과, 안과 등 범외과계 의사 95명(그중 일반외과계 20명) 뿐이고 명예회원 (Honorary Fellow)에는 한국인 최초로 당선되었다. 또한 1996년 4월에는 일본 외과학회 (Japanese Surgical Society, JSS) 명예회원으로 한국 최초로 당선되었다. JSS에는 2만여 명의 정회원에 명예회원은 전세계에서 4명뿐이었다. 또한 외국대학의 명예교수로는 화란 Leiden대학과 중국 북경대학에서 발령받았고 시카고, 보스톤, 밴더빌트 의대 등에 24회 초빙교수 (Visiting Professor)로 한국 의학의 위상을 높이는데 노력하였다. 이런 것들이 학자로서 민간외교를 담당하여 애국하였던 길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㉟